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 미 증시, 미-이란 협상 노이즈에도, 지표 호조, 엔비디아 효과 등으로 소폭 상승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일(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미-이란 협상 결렬 보도에 따른 유가 및 미국 금리 급등 여파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트럼프의 협상 중단 부인 발언 속 엔비디아(+6.3%)의 AI PC 발표에 따른 반도체, 하드웨어주 강세, 5월 미국 ISM 제조업 PMI 호조(54.0 vs 컨센 53.1) 등에 힘입어 반등하며 상승 마감(다우 +0.1%, S&P500 +0.3%, 나스닥 +0.4%).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체결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엇갈린 뉴스 플로어가 증시에 혼선을 주입시키고 있는 모습.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 리스크의 증시 충격은 제한되고 있으며, 양국 모두 확전보다 협상에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미국 장 마감 후 트럼프가 차주 휴전 연장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휴전안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노이즈이기는 하나,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AI 내러티브가 주가 결정력을 갖고 있는 상황. 일례로, 전일 엔비디아가 GTC 대만행사에서 AI 용 PC “RTX Spark”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PC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은 “PC 교체 사이클 도래 가능성 -> PC용 메모리 수요 증가”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

또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서버, 스토리지 업체 HPE(+9.4%)가 어닝 서프라이즈 및 가이드스 상향으로 시간외 30%대 폭등하고 있다는 점도 에이전트 AI 확산 전망에 따른 AI 인프라 수요가 추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 최근 메모리, AI 하드웨어 등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미국, 한국 모두 주요국 증시에서 AI 밸류체인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5월 수출 호조, 젠스항 방한 기대감 등이 삼성전자(+10.1%), LG전자(+29.9%) 등 관련 그룹주를 중심의 양극화 장세를 연출시키면서 코스피는 3%대 급등, 코스닥은 2%대 하락(코스피 +3.7%, 코스닥 -2.3%).

금일에도 엔비디아발 호재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 HPE의 시간외 주가 급등,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할 전망. 장 중에는 최근 폭등 업종에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겠으나, 여타 업종으로 순환매가 확산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한편, 이번 강세장 속에서 5월 이후 6월 현재까지 코스피가 33.2% 폭등한 반면 코스닥은 11.9% 급락하는 등 양 시장 간 수익률 극단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인 부분. 시가총액 관점에서도 코스피 대형주 지수(+42.3%)가 중형주 지수(-6.7%), 소형주 지수(-14.0%)의 성과를 크게 웃돌면서, 사실상 반도체, IT하드웨어, IT 가전, 자동차 등 4개의 소수 대형주만 가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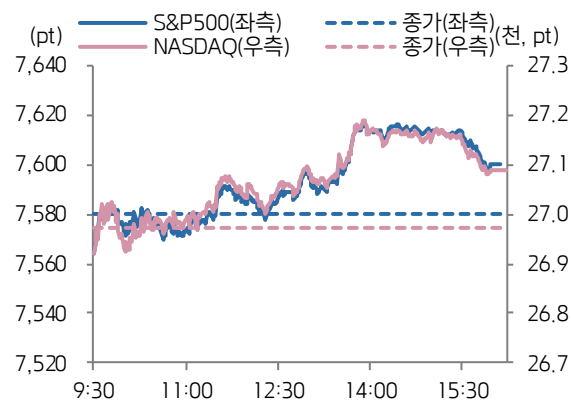
지금 시장 색깔은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속 미-이란 휴전 기대감 생성으로 금리 부담 및 유가 불안이 줄어들어 따라, 실적, 매크로가 아닌 내러티브가 만들어 내는 멀티플 주도 국면임. 그 과정에서 타이밍상 젠스 항 방한 내러티브 확산과 FOMO가 맞물리다 보니, 증시 메인 주포인 개인의 기존 및 신규 수급이 소수 주도 업종으로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음. 전일 한미약품(+9.8%)의 1.9조원 기술 수출 계약에도,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 내 바이오주들이

소수 주도주로의 수급 이탈 여파로 동반 약세를 기록한 점이 이를 뒷받침. 이는 추후 증시 전반에 걸친 변동성을 지속시키는 요인. 멀티플 주도 장세에서는 실적 주도 장세보다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기 때문.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소외를 받고 있는 여타 실적주에게 수익률 제고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 5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48.6조원으로 4월 대비 68% 급증했음에도, 증권주의 코스피 대비 성과가 크게 부진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5월 이후 수익률, 코스피 +33.2% vs 증권 -3.4%). 5월 이후 이익 모멘텀 개선에도 부진했던 전력기기(5월 이후 수익률 -10.8%), 조선(-11.4%), 백화점(-0.5%) 등 여타 주력 업종들도 동일한 범주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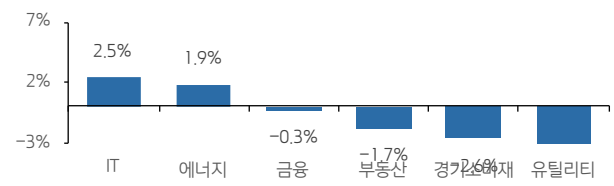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추후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주도주(반도체, IT 하드웨어) 보유 전략은 유효. 동시에 그간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소외된 실적주(증권, 전력기기, 조선, 백화점 등)를 분할 매수하는 바벨 전략을 병행하는 것도 대안일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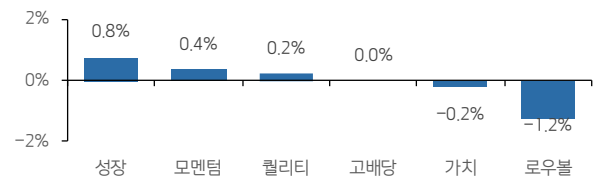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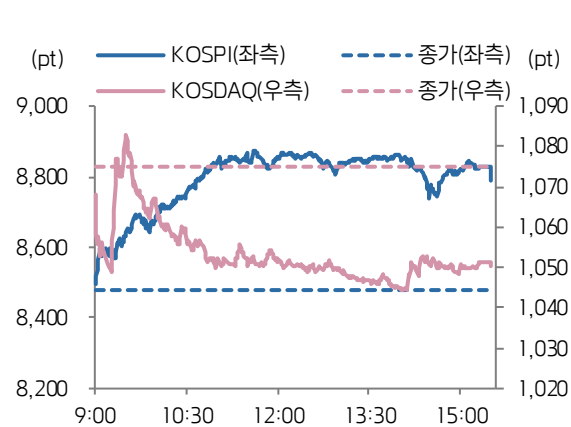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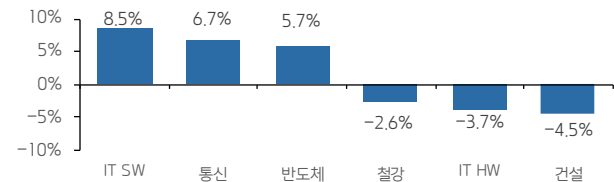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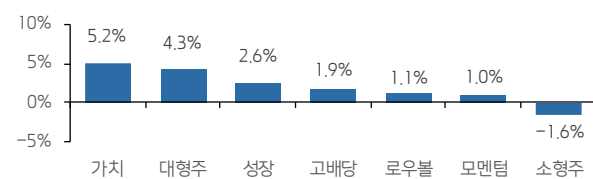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306.31	-1.84%	+12.88%	GM	82.68	-0.67%	+1.91%
마이크로소프트	460.52	+2.28%	-4.35%	일라이릴리	1,082.20	-2.06%	+1.04%
알파벳	376.37	-1.04%	+20.33%	월마트	114.60	-0.99%	+3.27%
메타	600.47	-5.07%	-8.95%	JP모건	296.58	-0.91%	-7.07%
아마존	261.26	-3.47%	+13.19%	엑손모빌	149.38	+2.84%	+25.81%
테슬라	415.88	-4.57%	-7.52%	세브론	185.83	+1.85%	+24.25%
엔비디아	224.36	+6.26%	+20.31%	제너럴일렉트릭	114.60	-1%	+3.3%
브로드컴	459.97	+2.95%	+33.18%	캐터필러	865.36	-1.2%	+51.7%
AMD	185.83	+1.85%	-13.23%	보잉	224.30	-2.96%	+3.31%
마이크론	1,035.50	+6.64%	+262.96%	넥스트에라	83.66	-3.9%	+4.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788.38	+3.68%	+108.54%	USD/KRW	1,512.90	+0.54%	+5.1%
코스피200	1,399.91	+4.25%	+131.02%	달러 지수	99.16	+0.22%	+0.85%
코스닥	1,050.03	-2.3%	+13.46%	EUR/USD	185.83	+1.85%	+15720.7%
코스닥150	1,850.15	-1.76%	+19.57%	USD/CNH	185.83	+1.85%	+2563.96%
S&P500	7,599.96	+0.26%	+11.02%	USD/JPY	159.66	+0.24%	+1.88%
NASDAQ	185.83	+1.85%	-99.2%	채권시장			
다우	51,078.88	+0.09%	+6.27%	국고채 3년	3.790	+6.7bp	+83.9bp
VIX	16.05	+4.77%	+7.36%	국고채 10년	4.179	+11.4bp	+79.4bp
러셀2000	2,905.76	-0.47%	+17.08%	미국 국채 2년	185.830	+337bp	+18235.7bp
필라. 반도체	12,965.65	+1.06%	+83.05%	미국 국채 10년	4.453	+1.8bp	+28.6bp
다우 운송	185.83	+1.85%	-98.93%	미국 국채 30년	4.970	-0.2bp	+12.6bp
상해종합	4,057.74	-0.27%	+2.24%	독일 국채 10년	3.003	+6.5bp	+14.8bp
항생 H	8,507.87	+0.97%	-4.55%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74,267.34	-0.68%	-12.85%	WTI	92.16	+5.49%	+61.57%
유럽, ETFs				브렌트유	94.98	+3.18%	+56.09%
Eurostoxx50	6,034.95	-0.26%	+4.21%	금	4,506.30	-1.89%	+1.48%
MSCI 전세계 지수	1,131.72	+0.09%	+11.54%	은	75.25	-0.82%	+6.59%
MSCI DM 지수	4,861.14	-0.07%	+9.72%	구리	655.25	+2.56%	+15.32%
MSCI EM 지수	1,773.23	+1.2%	+26.27%	BDI	3,224.00	-0.06%	+71.76%
MSCI 한국 ETF	216.70	+5.28%	+122.9%	옥수수	444.00	-0.62%	-2.31%
디지털화폐				밀	185.83	+1.85%	-65.02%
비트코인	71,352.45	-3.1%	-18.59%	대두	1,180.75	-0.51%	+9.91%
이더리움	2,003.25	-0.06%	-32.72%	커피	260.60	-1.88%	-20.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